

윌리엄 트레버의 『사랑과 여름』에 나타난 역사와 화해의 문제*

최 석 무

I

현대 아일랜드 소설가 중에서 윌리엄 트레버(William Trevor)는 영문학계뿐만 아니라 세계문단에서 작품의 우수성을 널리 인정받은 작가이다. 1993년에 미국 학자인 폴선(Suzanne Morrow Paulson)은 트레버의 단편소설에 관한 책 서문에서 트레버는 이미 “유럽에서 주요한 현대 작가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했다”고 말한다(xi). 2013년에 트레버 논문을 편집한 딜레니와 파커(Paul Delaney and Michael Parker)는 윌리엄 트레버를 “우리 시대에 영어로 작품 활동을 한 작가 중에 가장 많이 성취했고 가장 인정받는 작가 중의 한 명”이라고 말한다(1). 트레버는 동시대 아일랜드 소설가인

* 이 연구는 2020학년도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특별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College of Education, Korea University Grant in 2020).

에드나 오브라이언(Edna O'Brien)이나 존 반빌(John Banville) 등과 달리 우리나라에도 비교적 잘 알려진 작가인데, 이는 그가 2016년에 사망할 때까지 노벨문학상 후보로 다년간 거론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노벨문학상 후보였을 뿐만 아니라 많은 문학상을 받았고, 그의 작품은 비평가들의 연구 대상이 되어 그의 작품의 가치를 널리 인정받았다. 그의 이러한 유명세와 더불어 작품 내용이 재미있고 읽기가 비교적 쉽기에 그의 소설과 단편소설 일부는 우리말로 번역되어 우리나라 독자들도 그의 작품을 비교적 쉽게 접할 수 있다. 세계적인 작가이면서 국내 독자에게도 다소 친숙한 작가이지만, 국내에서 그의 작품세계에 관한 연구가 거의 없다. 본 논문에서는 트레버의 마지막 장편소설 『사랑과 여름』(Love and Summer)을 분석하면서 그의 작품세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아일랜드 독립 전과 마찬가지로 독립 후에도 아일랜드 작가에게서 종교적 출신 배경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트레버는 동시대 가톨릭 출신 작가인 에드나 오브라이언이나 존 반빌과 달리 신교도 출신이다. 20세기 이전에 아일랜드 신교도는 가톨릭을 지배하는 지배세력으로 특권을 누려왔지만 20세기 전환기에 그러한 특권은 점차 사라지게 된다. 1922년에 아일랜드가 독립하기 이전까지 아일랜드 신교도들은 영국 정치사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지만, 독립 후엔 소수 집단으로 전락하여 가톨릭 국가 건설이라는 아일랜드 정부의 기조에 소외되는 그룹에 속하게 된다. 주류였던 사람들이 막강한 정치, 사회적 힘으로 비주류를 탄압하다가 비주류가 되었을 때, 그들은 과거를 어떻게 기억하면서 현재를 살아갈까? 그들은 사회의 소수 집단으로 새로운 정체성을 설정하고 살아야 하기에 역사와 정치에 민감한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면 마허(Eamon Maher)가 주장하듯이, 트레버는 브라이언 프리얼(Brian Friel), 세이머스 히니(Seamus Heaney), 존 맥가헌(John McGahern) 등과 더불어 “독립 후 아일랜드에서 아일랜드인의 정체성이나 문화의 불편한 요소를 간결하면서도 설득력 있게 묘사한” 작가에 속한다(174). 본 논문에서는 『사랑과 여름』을 정치적/역사적 관점에서 읽고자 한다. 이 작품은 2009년에 발표되었지만, 소설 배경은 1950년

초이기에 아일랜드 독립 후의 사회상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특히 소설의 주인공인 플로리안(Florian)은 50년대 초에 20대였던 트레버를 상기시키기에 작가 자신의 시대적, 역사적 고민의 산물로 이 작품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런데 트레버는 『파리 리뷰』(*The Paris Review*)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작품은 개인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에 아일랜드 정치적, 문화적 갈등에서 기인한 역사적/이데올로기 문제에는 관심이 없다고 말한다.

나는 내가 아일랜드인이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는다. . . . 아일랜드에서 갈등—슬픔—은 소설가에게 멋진 배경막이다. 그러나 이것은 나에게 어떠한 영감도 주지 않았다. . . . 나에게 흥미로운 것은 두세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것이다. 그들이 겪는 특정한 행복이나 고통이 어떤 정치적 이유로 존재한다면, 정치적 이유가 그 속에 들어온 것이다—그렇지만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먼저다. 나는 항상 거대한 사고(이성)—예를 들어 정치적 사고—를 제거하려 하지만 때로는 쉽지 않은 일이다. 나에게 정치적 사고보다 인간적인 사고가 더욱 흥미롭다. . . . 나는 인물들이 처한 곤경 이상의 어떠한 것도 인물에게 부과하지 않는다. (Stout)

트레버를 연구하는 비평가들도 이러한 작가 자신의 작품관을 반영하여 비정치적인 해석을 시도하는 경향이 많다. 본 논문에서 다루는 『사랑과 여름』도 비정치적인 비평이 주를 이룬다. 한손(Heidi Hansson)에 따르면 이 작품은 “구체적 시간이나 장소를 특정하고 있고, 분리되었지만 연결된 삶을 사는 인물을 제시하고 있기에 라쓰모이(Rathmoye)라는 공동체보다 개 개인의 묘사를 중시한다. 이것은 정치적/이데올로기적 관점보다 개인적/윤리적 관점을 유도한다”고 말한다(198). 그리고 이 작품의 “인물들은 정체성 정치학(identity politics)을 대변하는 자가 아니라 윤리적 가치를 가진 자”로 “그들의 행동은 집단의 역사(collective history)에서 그들의 역할보다는 개인의 이야기에 지배당한다”고 말한다(200).

트레버가 오랫동안 아일랜드의 옛 지배세력이었던 신교도 출신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비정치적으로 그의 작품을 읽기를 바라는 작가의 견해는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아일랜드와 같이 식민역사를 경험하고 지배/피지배 집단의 갈등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오늘날에도 남아 있는 경우에 역사적 문제를 무시하기는 힘들다. 프레드릭 제임슨(Fredric Jameson)은 제3세계 국가에서 출판된 작품은 알레고리로 읽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외관상으로 개인적이거나 전적으로 성적 역학(libidinal dynamic)으로 채워진 제3세계 텍스트도 필연적으로 민족의 알레고리의 형태로 정치적인 면모를 투영한다. 즉, 개인의 운명을 다룬 이야기는 항상 제3세계의 공적인 문화와 사회의 힘든 상황의 알레고리이다”(69). 트레버는 자신의 이야기에서 개인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제임슨의 이론에 따르면 이 개인적인 이야기는 정치적 함의를 가진다. 그리고 트레버가 트리니티 칼리지(Trinity College)에서 역사학을 전공했다는 사실은 그의 역사에 대해 가진 관심을 보여준다. 딜레니와 파커가 주장하듯이, “역사적 이슈와 관심은 [트레버가] 작가가 되는 여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고 그의 많은 작품은 역사적 문제를 다루고 있다(2-3). 와이틀리(Patrick J. Whitley)에 따르면 트레버의 작품은 “과거를 잊으려는 유혹에 저항하면서 과거를 기억해야 할 필요성”을 옹호하고 있다고 주장한다(77).

본 논문은 『사랑과 여름』에 포함된 정복과 지배의 역사를 분석하면서 트레버가 아일랜드 역사문제를 진단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려는 작가임을 증명하려 한다. 특히, 트레버가 신교도 작가로서 지배/피지배 관계를 소설에서 어떻게 재현하고 있고, 이를 통해 역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지 알아보겠다.

II

『사랑과 여름』은 가톨릭교도인 엘리(Elle)와 신교도인 플로리안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다른 인물들은 이 두 사람과 직간접적

으로 연결된다. 첫 장에 제시된 코널티 부인(Mrs. Conulty)의 장례식도 두 사람이 처음 만나게 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이들의 만남이 전체 이야기를 지배하기에 이 둘의 만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둘의 만남을 개인적/윤리적으로 해석하면 이미 결혼한 가정주부가 청년과 사랑에 빠지는 문제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이런 관점의 읽기는 이 소설을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The Bridges of Madison County*)와 같은 통속적인 불륜의 이야기로 단순화시키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소설을 1950년대 아일랜드 후기 식민사회라는 관점에서 볼 때, 과거 지배층과 피지배층 출신의 두 인물의 만남은 다분히 정치적 함의를 가진다.

케네디-앤드류스(Kennedy-Andrews)는 트레버가 “추상적인 이념보다는 항상 실제적인 인간”을 그리고 있다고 말한다(56). 플로리안과 엘리는 개인적인 특징을 가진 구체적인 인물로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개인을 넘어 집단의 역사를 상기시킨다. 즉, 플로리안은 신교도를, 엘리는 가톨릭을 대변하는 인물로 그려진다. 플로리안은 가톨릭교도인 이탈리아인 어머니와 앵글로 아이리시인 아버지 사이에 태어났는데 표면적으로 이것은 두 종교의 화합의 메시지와 혼성적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플로리안의 어머니는 가톨릭 신앙을 버리고 신교도로 전향하여 지금은 신교도 묘지에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플로리안은 신교도 집에 태어나 신교도 교육을 받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가톨릭인 플로리안의 외가는 이탈리아 귀족 가문이었고 큰 집을 살 정도의 유산을 남겨주었지만, 딸의 결혼을 반대하여 인연을 끊는다. 플로리안은 자신의 “이름도 친할아버지 이름을 딴 것”(LS 26)에서 알 수 있듯이 친가인 신교도의 영향을 받았다. 플로리안의 아버지가 “원래 카운티 골웨이에 있다가 오랫동안 서머셋(Somerset)에서 살았던 군인 집안에서 태어났다”(LS 26)는 사실은 플로리안의 조상이 군인으로 아일랜드 식민화에 기여했음을 암시한다. 플로리안의 아버지는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였고, “1918년에 전쟁이 끝이 나자 연대에서 이탈한 뜨내기 군인”이었다(LS 26). 트레버는 플로리안을 신교를 대표하는 인물로 설정하기 위해 식민역사, 제국주의 역사

를 도입하고 있다.

아일랜드 독립 후에 아일랜드에서 태어난 플로리안은 아일랜드 국적 소유자이다. 그가 아일랜드인임을 강조하듯이 그의 여권에는 아일랜드어, 영어, 불어로 “아일랜드”(LS 112, 181)가 적혀 있는 것이 두 차례나 언급되지만, 그는 지역민과 어울려 살아가지 못한다. 그의 여권상의 국적과 달리 그를 지칭하는 단어는 전통적으로 아일랜드 침입자를 의미하는 단어가 사용된다. 미스 코널티(Miss Conulty)는 플로리안과 엘리의 관계를 직감하고 그를 “약탈자”(plunderer)(LS 88) 또는 “침입자”(interloper)(LS 210)라고 규정한다. 그는 코널티 부인의 장례식에서 처음 등장하는데 화자는 그를 “낯선 사람”(stranger)(LS 4)이라고 지칭한다. 이 용어는 영국인 침입자를 의미하는 말로 아일랜드에서 흔히 통용된다. 예를 들어, 예이츠(W. B. Yeats)의 『캐슬린 니 홀리언』(*Cathleen Ni Houlihan*)에서 늙은 노파(Old Woman)는 영국인을 “낯선 사람들”(7)이라고 지칭하고, 조이스(James Joyce)의 『율리시스』(*Ulysses*)에서 스티븐(Stephen)은 영국인 헤인즈(Haines)를 “낯선 사람”(U 1.661)이라 부른다. 미스 코널티가 플로리안에 대해 반감을 표현하자, 엘리는 플로리안을 “반은 이탈리아인”(LS 98)이라고 소개하고자 한다. 이는 그의 아버지가 앵글로 아이리시임을 밝히는 것을 꺼려하는 아일랜드 사회 분위기를 짐작하게 한다. 앵글로 아이리시는 아일랜드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만, 진정한 아일랜드 시민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참담한 현실을 암시한다.

엘리는 고아이지만 마을 사람들과 깊은 유대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인물로 등장한다. 라쓰모이 사회의 일원인 그녀는 신교도인 플로리안과의 관계에서는 아일랜드를 상징하는 여성으로 그려진다. 두 번째로 플로리안이 엘리를 보았을 때 “그녀의 파란색 옷이 그의 시선을 끈다.” 이 옷은 “이전에 그녀가 입었던 옷이었고 그녀에 대한 꿈을 꿀 때 그녀가 있었던 옷이었다”(LS 80). 그녀의 파란색 옷은 전통적으로 성모 마리아의 옷 색깔이다. 아일랜드 가톨릭은 성모 마리아를 아일랜드 여성의 역할모델로 받아들인다. 아일랜드 여성은 성모 마리아처럼 “순수하고 순결하고 무엇보다

도 순종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한다(Ingman 143). 엘리가 플로리안과 성관계를 가진 후, “그녀의 파란 옷은 꾸겨져 있었다”(LS 180)라는 표현은 침략자의 정복에 더럽혀진 아일랜드 여인의 모습을 통해 제국주의 정복과 성적정복을 연관시킨다. 트레버는 조이스와 마찬가지로 “사랑과 정치의 잔인성을 서로 연결 짓는다”(Manganiello 52). 남녀관계가 정치적 관계를 우회적으로 보여준다. 엘리가 다른 옷을 입고 온 날도 묘사되고 있는데 이는 아일랜드를 상징하는 “초록색 옷”(LS 119)으로 파란색과 더불어 정치적 함의를 내포한다. 작가는 엘리가 입고 있는 옷을 통해 그녀에게 아일랜드 여성을 대변하는 인물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려 했다. 이 작품에서 플로리안과 엘리는 성관계를 한번 한다. 그러나 데이비드 로지(David Lodge)가 주장하듯이, “이 작품에는 성행위에 대한 묘사나 언급이 전혀 없다”(55).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옷과 신발, 그리고 샤워하는 장면을 통해 그들의 성관계를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을 뿐이다. 이는 이들의 결합이 아름답지 못하다는 것을 함축한다. 성관계 후의 두 사람의 반응 또한 다르다. 엘리는 “제재소에서 일하는 남자”(LS 181)와 바람이 나서 파계한 수녀를 생각한다. 엘리는 불륜 행위를 한 자신을 파계한 수녀와 비교하면서 이교도와와의 관계에 대해 죄의식을 표현한다. 반면에 플로리안은 그녀의 불행한 과거를 되새기면서 “버려진 아이”이며 “하녀”였던 외로운 그녀에게 “연민”과 “죄책감”을 느낀다(LS 185). 그의 의식은 그녀에 대한 애정이나 사랑으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그녀와의 태생적, 계급적 차이를 보여준다. 그녀에 대한 감정이 진정한 사랑이라 할 수 없는 것은 그녀에 대한 배려심의 부족에서도 엿볼 수 있다. 물은 차갑고 수건이나 비누도 없는 지저분한 샤워실은 그가 그녀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보여 준다.

플로리안과 엘리의 관계를 지배/피지배 관계로 해석할 수 있게 작가는 그들의 관계를 과거에 일어난 두 개의 사건—미스 코널티의 연애담과 세인트 존스가(The St. Johns)의 비행—과 직, 간접적으로 연결하게 하고 있다. 미스 코널티는 가축병 치료용품 외판원인 아서 테틀로우(Arthur Tetlow)와 연애를 해서 임신을 하게 된다. 이 둘의 연애담은 개인사로 볼

수도 있지만, 아서가 영국인이라는 점 때문에 정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작가는 그가 영국인임을 강조하기 위해 그는 “자신의 국가를 위해서 싸워야 했고”(LS 74), 그의 차는 “영국 등록번호판을 한 포드”(LS 74)라고 자세히 언급한다. 그는 유부남임에도 불구하고 미스 코넬티와 관계를 맺었고, 전쟁에 나간 후 아무 소식도 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아일랜드 여성을 농락한 영국인의 모습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그들의 관계를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해석할 필요는 없다. 그가 전쟁 후에 부인에게 돌아간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사망하여 소식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스 코넬티가 평생 독신으로 지내고 “그 시절을 기념하여 . . . 매일 오후 몸을 단장하는 의식”(LS 74)을 행하면서 그를 그리워하는 장면을 통해 이들의 관계를 국경의 차이를 초월한 영원한 사랑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러한 해석이 가능해도 아서가 미스 코넬티를 의도적으로 이용하고 버렸을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미스 코넬티는 아서를 그리워하지만 이러한 일이 엘리에게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사실에서 아서가 그녀를 버렸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엘리와 플로리안의 관계보다 미스 코넬티와 아서의 관계가 영국 남성에게 이용당하고 버림을 받는 아일랜드 여성의 모습을 더 잘 재현한다. 작가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과거의 사건과 연결하게 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흥미롭게도 두 커플의 관계는 수의학과 연관되어 있다. 미스 코넬티의 남자는 “수의학 용품을 취급하는 외판원”(LS 74)이고, 엘리는 “인공수정사”(LS 5)가 그녀를 찾아오는 날 처음으로 플로리안을 만난다. 이러한 동물과의 연관성은 두 커플의 관계가 정신적 유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동물과 같은 일시적 육체적 쾌락에 기인함을 암시한다. 플로리안이 자전거를 타고 더블린으로 떠나는 장면을 목격한 미스 코넬티는 엘리의 사건을 그녀의 과거와 연결 짓는다. 그녀는 “엘리 딜러헌에게 모든 게 끝났어”(LS 209)라고 혼자 말로 이야기하면서 그녀의 아버지가 자신을 더블린에 데려가 낙태 수술을 비밀리에 한 후에 “모든 게 끝났어, 얘야”(LS 209)

라고 말한 것을 상기한다. 이러한 연결고리를 통해 과거의 사건은 현재 사건과 연결된다. 미스 코네티의 동생인 조셉 폴(Joseph Paul)도 두 사건을 연결 짓는다. 그는 자기 누이의 “자전거를 탄 낯선 사람에 대한 앙심은 그의 누이가 가축병 치료용품 외판원에게 배신당한 일 때문에 생긴 것이다”(LS 110)라고 말한다. 조셉 폴이 플로리안을 “낯선 사람”이라 지칭하고 그를 영국인 아서와 연결 짓는 이 말은 작가의 메시지인 것처럼 두 사건이 밀접히 연결되게 한다.

세인트 존스가에서 수십 년 전에 일어난 사건은 지배/피지배 관계를 이용해 지배 계급의 남성이 피지배 계급의 여성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이야기의 전형이다. 존스가는 전형적인 앵글로 아이리시 가문으로 아일랜드 피지배층인 가톨릭교도들이 싫어할 요소를 다분히 포함하고 있다. 이 가문에서 사서로 일하였던 오펜 렌(Orpen Wren)은 신교도인 앵글로 아이리시이고, 집사인 스탠들비(Standleby)는 “노포크(Norfolk) 출신의 영국인”으로 “노포크 경찰의 수배를 받고 있는 자”로 의심받고 있는 인물이다(LS 116). 이 가문은 “리머릭 주교”(Bishop of Limerick)나 “팰프리 대령 부인”(Mrs Colonel Palfrey)과 같은 지배층 인사가 방문할 정도로 영향력 있는 가문이다. 이 가문이 몰락한 것은 이 집 아들들의 성적 타락 때문이다. 장남인 엘라도(Elador)가 유부녀와 도망가자, 그의 어머니는 이러한 성적 타락은 “가문 내력 때문이지”(LS 152) 라고 말한다. 이 말은 이 가문 남성들의 일탈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그동안 계속 진행되었다는 의미이다. 이런 성적 일탈 행위의 역사는 수년 후에 차남인 잭(Jack)이 남의 여인을 취하여 농부가 총을 들고 집에 쳐들어오는 사태에서 반복된다. 아일랜드 독립운동과 더불어 앵글로 아이리시들이 사회에서 힘을 잃어가고 있는 시대에 세인트 존스가의 성적 일탈은 더는 용납되지 않기에 그들은 아일랜드를 떠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작가는 이러한 관계의 폭력성이 오늘날에도 재현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플로리안을 그 가문 출신으로 오해하게 하는 기법을 사용한다. 오래전에 세인트 존스가에서 사서로 일했던 오펜은 플로리안을 보고 세인트

존스가의 자제 중의 하나로 착각하고 그가 보관해 온 그 가문의 서류를 전달하려 한다. 또한 오피는 세인트 존스가의 자제들이 한 “말썽”(trouble) (LS 153, 195)을 플로리안과 엘리, 딜러헌에게 말하면서 과거의 일이 현재 일어나고 있음을 넌지시 말한다. 오피는 딜러헌에게 “세인트 존스가의 남자들이 발견한 여성은 누구든 데려간다”(LS 195)라고 이야기하면서 딜러헌의 첫 번째 아내가 존스가의 남자와 도망가려 했다고 전한다. 엘리도 플로리안이 아일랜드를 영원히 떠난다고 하자, “세인트 존스가 처럼요?”(LS 136)라고 되물으면서 플로리안을 세인트 존스가와 은연중에 연결한다.

세인트 존스가가 거주했던 집인 리스퀸(Lisquin)은 ‘빅 하우스’(Big House)(LS 43)인데 플로리안도 빅 하우스에 살고 있기에 두 가문은 연결되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은 상호 연결된다. 아일랜드에서 ‘빅 하우스’는 흔히 지주계층의 앵글로 아이리시의 거주지를 일컫는데, 1919년부터 1923년 사이의 아일랜드 혁명 기간에 아일랜드공화군의 공격을 받아 많은 집이 불타버린다. 지주계층의 앵글로 아이리시는 “토지 소유제에 있어서 구체제의 상징이며 영국 국왕과 제국에 충성”을 했기에 혁명기에 수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Donnelly 141). 존스가가 어떻게 폐허가 되었는지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아일랜드공화군의 공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플로리안이 거주하고 있는 집 이름은 셸하나(Shelhanagh)인데 엘리는 아일랜드에서 빅 하우스의 의미를 이해하기에 빅 하우스가 맞는지 직설적으로 묻지 않고, “그거 커요, 그 집말이에요?”(Is it big, the house?)(LS 84)라고 에둘러서 말한다.

그러나 플로리안의 경우에는 빅 하우스에 거주하고 있지만, 지주계층인 앵글로 아이리시처럼 대대손손 물려받은 것은 아니다. 플로리안의 어머니는 이탈리아 명문 가문 출신이지만 “하루하루 근근이 먹고사는”(LS 26) 플로리안의 아버지하고 결혼하여 가난하게 살다가, 친정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으로 빅 하우스를 산다. 그렇지만 플로리안의 부모의 생활 방식은 신교도 귀족의 모습이다. 그림을 팔게 되면 “화가나 미술계와 연관된 사람들”(LS 30)을 초청해 파티를 여는 모습은 가톨릭교도들의 생활

과 거리가 먼 신교도 특권층의 모습이다. 그들은 모습은 에이츠, 레이디 그레고리(Lady Gregory)와 같이 문화, 예술 분야에서 뛰어난 발자취를 남기고 상류층 생활을 한 앵글로 아이리시 문예 부흥론자들을 상기시킨다. 플로리안은 화가로서의 재능은 없지만 사진 촬영에 관심을 드러내는데 그의 이러한 모습에서도 문예 부흥론자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문예 부흥론자들은 아일랜드의 과거에 관심이 많았는데, 플로리안도 현재 변화하는 아일랜드의 모습이 아니라 과거의 잔해나 기이한 것에 관심이 많다. 그는 “산사태로 기반이 뒤틀린 연립주택의 위태한 상태”(LS 4)나 “불타버린 극장”(LS 3)을 사진에 담는다. 가톨릭교도인 코널티 부인의 장례식은 플로리안과 같은 “낮선 사람”(LS 4)에게는 기이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에 그는 “비밀스럽게 그 광경을 찍는다”(LS 3). 그는 “기이한 것을 찾아 원주민 거주지에 온” 이방인의 모습이다(Kiberd 336). 흥미롭게도 그는 “이탈리아인 어머니와 앵글로 아이리시인 아버지 사이에 남겨진 유일한 존재(relic)”(LS 26)라고 소개되는데, ‘relic’이란 단어는 유물, 유적의 의미로 문예 부흥론자의 관심거리를 떠올리게 한다. 문예 부흥론자들의 과거나 기이한 것에 관한 관심은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들은 가톨릭교도들을 기이한 문화를 가진 과거의 존재로 묘사하여 현실 정치에 무력하다는 주장을 통해 자신들의 비교 우위를 주장하려 했다.

195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이 작품은 시대의 변화에 따른 권력의 변화를 상기시키듯이, 플로리안과 엘리의 관계를 아서와 미스 코널티, 세인트 존스가의 남성들과 하층민 여성들과의 관계와 달리 묘사하고 있다. 미스 코널티는 평생 독신으로 지내면서 아서를 그리워하고, 세인트 존스가의 남성들은 계속해서 여성들을 농락하지만, 플로리안은 엘리에게 “당신과 함께 가고 싶어요. 어디든지”(LS 171)라고 말하지만, 그녀를 설득하지 못한다. 그녀는 지배/피지배 관계에서 전형적으로 보이는 수동적인 면이 없고 주체적으로 행동한다. 그녀는 플로리안에게서 연락이 없자 그의 집에 자발적으로 찾아가서 성관계를 맺는다. 그 후 플로리안이 “내일 와요, 엘리. 작별인사라도 하려고요”(LS 184)라고 요청하지만, 그녀는 오지 않는

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있다가 자전거 불빛을 보게 되어 밖으로 나오는데 이는 플로리안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개가 짖을까 봐 재빨리 아래층으로 내려온 것”(LS 204)이다. 그녀가 플로리안과 만나는 다음 장면에서 그녀의 주체적인 모습을 엿볼 수 있다.

그들은 껴안지 않았다. 이제는 그러지 않았다. 그는 그녀 옆에 있는 그림자이지, 그 이상은 아니었다.

‘왜 왔어요?’라고 그녀는 물었다.

그녀는 그가 어둠 속에서 그녀의 얼굴을 보기 위해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음을 느꼈다. 왜 왔냐고 다시 묻자, 그녀를 기다렸다는 것을 알려려 왔다고 그는 말했다. . . . 그는 그녀의 손을 잡으려 손을 뺐었지만, 그녀의 손은 거기에 없었다. (LS 205)

그녀에게 플로리안은 ‘그림자’에 불과한 존재로 이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하기에 그녀는 그와의 어떠한 신체접촉도 거부한다.

플로리안이 엘리에게 가진 감정도 주목할 부분이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다고 말하지 않고, 그녀가 자신을 “사랑한 것을 잊지 않겠다”(LS 205)고 말한다. 사실, 그는 엘리가 아니라 사촌 이사벨라(Isabella)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었고 그녀와의 추억을 잊지 못한다. 그가 아일랜드를 떠나 스칸디나비아에 가서 조용히 살려는 계획도 이사벨라를 “영원히 사랑하지 않을 결심”(LS 171)을 했기 때문이다. 만일 그가 엘리를 더 사랑했다면 아일랜드를 떠날 계획을 그만두었을 것이다. 또한, 엘리가 오지 않자, 이사벨라와 자신이 “지붕에서 자려 했던”(LS 201) 추억을 떠올리는 장면은 그가 엘리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게 한다. 플로리안은 엘리에 대해서는 “죄책감”(LS 202)을 느끼지만, 그것도 그녀를 “기다리면서 희미해진다”(LS 202). 플로리안은 그들의 관계를 “위험한 사랑”으로 규정하고 이는 그가 “탐욕스럽게 우정에서 너무 많은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LS 185) 시작되었다고 결론짓는다. 이러한 의미에서 플로리안의 엘리에 대한 감정은 진정한 사랑이라 할 수 없다. 마지막 만남에서 플로리안은 “나를 미워

하지 말아요”(LS 205)라고 두 번이나 그녀에게 말하는데 이는 그의 태도에 문제가 있음을 자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다가 마지막에 “당신을 미워할 수는 없죠”(LS 206)라고 말하고 그와 헤어진다. 미스코널티가 생각하듯이, 플로리안은 다른 지배층의 남성들처럼 엘리를 “못 되게 이용”(ill-used)(LS 210)하고 버렸을 수도 있다. 그러나 작가는 엘리를 다른 여인들과 달리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여성으로 설정하여 과거의 역사적 관계를 재현하면서도 이를 전복하는 기법을 도입하고 있다. 엘리의 용서의 의미는 이 둘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들이 대변하는 두 집단의 관계에서 자행되었던 폭력에 대한 용서와 화해의 메시지로 볼 수 있다. 배를 타고 아일랜드를 떠나는 플로리안은 “등대”와 “바다 위에서 춤추고 있는 햇빛”(LS 212)을 바라보는데, 이는 죄책감에서 해방된 모습이다.

III

엘리와 플로리안의 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랑과 여름』에서 용서와 화해의 메시지는 중요하다. 아일랜드의 역사적 갈등은 신교도인 영국인이 아일랜드에 정착하여 가톨릭교도를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지배함으로써 발생하였다. 트레버는 가톨릭/신교의 이분법을 극복하기 위해 종교에 따른 편 가르기를 무력화시키는 전략을 취한다. 대표적인 예가 플로리안의 부모의 경우로 그의 어머니는 가톨릭교도이고 아버지는 신교도이다. 어머니는 죽을 때 남편과 “헤어지지 않기 위해”(LS 138) 가톨릭 신앙을 버린다. 그들의 관계를 통해서 신교와 구교라는 종교적 차이는 사랑이라는 대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다음 장면을 통해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서로를 사랑했는지 알 수 있다.

플로리안은 남겨진 수채화를 [아버지와 어머니 중에] 누가 그렸는지 분간할 수 없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옛날에는 매우 달랐고 의견도

맞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세월이 가면서 두 분은 서로 닮아가서 누가 누군지 식별하기 곤란할 때도 있었다. (LS 138)

플로리안은 부모님이 “사는 방법을 잘 아시고,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분”(LS 168)으로 기억한다. 그들이 사는 방법은 종교적으로 분열된 아일랜드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평화로운 가정이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종교가 아닌 인간관계를 중시하여 타인과의 경계를 허물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함축하고 있다.

독립 후에 아일랜드 신교도는 사회의 소수파로 전락하여 사회적, 정치적 영향력이 줄어든다. “적은 수의 성공회 신자”(LS 128), “자그마한 신교도 묘지”(LS 138), 플로리안의 부모의 장례식에 참석한 “소수의 조문객”(LS 175)은 이러한 현실을 잘 보여준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신교도인 플로리안은 아일랜드를 떠나고, 오피은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기에 아일랜드에서의 신교도의 미래는 밝지 않다. 이미 사망한 플로리안의 부모는 지인을 초청하여 파티하는 등 과거 신교도의 화려한 생활을 보여주지만, 현재 플로리안의 집의 상태는 과거의 영화와는 거리가 멀다. 작가는 허물어져가는 그의 집을 과거의 파티와 연관 지어 제시한다. “파티가 열리던 시대 이후에 잠을 자지 않았던 침대 방 창문 위의 천장이 허물어졌다”와 “더러운 창유리 위에서 햇빛이 파티에 온 사람들이 춤을 추었던 곳에 그림자를 드리웠다”(LS 29)라는 표현은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진 현재 상황을 과거와 비교해서 보게 한다. 그의 낡은 집과 마찬가지로 그의 제시(Jessie)라는 개도 늙어 죽게 되고, 그의 자전거도 “오래되었다”(LS 52). 이러한 이미지를 통해 트레버는 앵글로 아이리시의 암울한 시대적 현실을 보여준다.

『사랑과 여름』은 아일랜드에서 신교도의 사회적, 정치적 영향력은 줄었지만, 그들이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오피은 “돈도 집도 없는” 상태에서 라쓰모이에 와서 지금은 “자선 주택”(LS 43)에 살고 있지만, “받은 연금의 많은 부분”(LS 45)을 “거지 소녀,” “부랑아,” 또는 “불행이나 불운에 관한 이야기를 중얼거리면서 부끄러워하는 사람”(LS 46)에게 쥐 버린다. 그의 행위는 예이츠의 드라마인 『캐슬린 백작 부인』

(*The Countess Cathleen*)에서 자신의 소작인을 기근에서 구하고자 영혼을 악마에게 판 백작 부인의 그것에 비견할 만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신교도가 사회에 이바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오펜은 또한 이 작품에 나타난 갈등을 해결하는데 중대한 역할을 한다. 그는 여러 사람에게 길을 물어 가면서 딜러헌을 찾아가 그에게 중요한 정보를 준다. 독자는 오펜이 엘리와 플로리안의 불륜을 폭로하기 위해 딜러헌을 방문한 것이라 예상하는데, 실상은 플로리안과 엘리의 관계를 세인트 존스 가문의 남성과 딜러헌의 전 부인과의 관계로 오인하고 이야기하면서, 엘리가 남편과 화해하게 되는 절대적인 계기를 마련해 준다. 이러한 사실은 과거에 집착하는 오펜의 정신적 문제에서 비롯되었는지, 아니면 그녀를 구하기 위해서 그가 의도한 것인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플로리안이 마지막으로 엘리를 만났을 때, 오펜이 “당신을 구했다”(LS 206)라고 말한 것이나, 35장에서 “오펜 렌은 잠을 잤다”(LS 208)라고 시작된다는 사실은 그가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고 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에 그의 행동이 의도적이었다고 보는 근거가 될 수 있다. 트레버 작품에서 자주 등장하는 “성인 같은 인물 또는 정신이 나간 인물”(Monaco 111)에 해당하는 오펜이 한 마을의 평화를 회복하게 하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행사했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그는 신교도이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기에 아일랜드 사회에서 주변부적 위치를 차지한다. 그의 주변부적 위치는 작가 트레버의 그것처럼 “사람들의 모든 것을 보는 관찰자”가 되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가능하게 한다(MacKenna 9).

그러나 오펜뿐만 아니라 가톨릭교도인 미스 코널티도 엘리를 도운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녀는 화해와 평화를 모색하는 인물이다. 그녀는 “저 고아 소녀는 우리에게 딸”(LS 108) 같은 존재라고 말하면서 엘리와 플로리안이 가까워지는 것을 경계한다. 엘리가 플로리안과 떠나려고 하자, 그녀에게 “사랑은 미친 짓(madness)이다”(LS 189)라고 경고의 말을 한다. 플로리안이 혼자 떠나자, 미스 코널티는 엘리에게 “아이기 생기면 아무도 그 아이를 빼앗아 가지 못하게 해”(LS 209)라고 조언한다. 그녀는 자

신의 부주의로 전처와 아이를 죽여 죄책감 속에 살고 있는 딜러헌에게도 그 아이가 행복을 가져다줄 것이라 확신한다. 그리고 그 아이를 자신의 낙태한 아이와 동일시하여 자신도 위로를 받고자 한다. 엘리의 사생아가 두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미스 코넬티의 바램은 딜러헌이 태어날 아기가 “자신의 아이라고 믿는 경우”(LS 209)에만 가능함으로 너무 사건을 단순하게 보는 경향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지만, 아이를 낙태나 사고로 잃어버린 두 사람의 상처를 치료할 여지를 열어둔다는 점에서 희망적이다. 트레버는 이미 『투르게네프 읽기』(*Reading Turgenev*) 등과 같은 작품에서 “과거로부터 해방되지 못하는 인물은 글자 그대로 그리고 상징적으로 불임의(sterile) 삶을 살게 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Fitzgerald-Hoyt 44), 『사랑과 여름』에서는 그 반대로 아기의 임신은 인물이 과거의 짐착에서 벗어나게 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독립된 아일랜드에서 다수가 된 가톨릭교도는 어떻게 묘사되어 있을까? 이들의 삶을 통해서 작가는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가? 다니엘 오코넬(Daniel O’Connell)은 가톨릭의 해방자로 존경을 받고 있는데 그의 초상화는 코넬티가의 “흑단 액자”(LS 14)에 걸려있을 정도로 가톨릭적 정체성은 아일랜드 국민에게 중요하다. 독립 후 가톨릭교회의 막강한 권력은 신교도인 플로리안이 “여권 신청서에 신부의 서명”(LS 27)을 받아야 하고, 엘리가 딜러헌의 집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수녀원장의 추천”(LS 22)을 받아야 한다는 것에서 간접적으로 드러난다. 흥미롭게도 소설은 가톨릭의 옹호자인 코넬티 부인의 장례식으로 시작되는데 그녀는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묘사된다. 이는 죽어서도 없어지지 않는 그녀의 막강한 영향력을 보여준다. 그다음 날에 열린 장례미사에 주교도 참석하기도 되어있는데 이를 통해 열성적인 가톨릭교도인 그녀가 “마지막까지 마땅히 받아야 할 대우”(LS 2)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녀의 가정은 그녀의 철저한 가톨릭 세계관 때문에 철저히 파괴된다. 그녀는 딸인 미스 코넬티가 남편의 도움으로 가톨릭교회에서 금지한 낙태 수술을 받자, 남편과 딸과 의절한다. 그녀는 남편을 “살인자”로 부르

고, “그를 위해 다락방에 침대를 마련하고 거기서 계속 자게 한다”(LS 76). 그녀는 죽어서 “남편과 재회해야 할까 봐 두려워 그렇게 되지 않기를 기도하고”(LS 1), “그녀의 이름이 남편의 묘비석에 병기되는 것을 거부하여 자신만의 무덤과 묘비석을 만들라고 유언한다”(LS 12). 그녀는 낙태 및 이혼 금지와 같은 가톨릭 윤리에 따라 사는데 이러한 독실한 신앙은 그녀가 사회에서 인정받게 하지만, 그녀의 가정은 철저히 파괴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코넬티 부녀는 낙태라는 반 가톨릭적 행동 때문에 코넬티 부인의 증오의 대상이 되지만, 그들은 좋은 사람으로 묘사된다. 코넬티씨는 낙태 사건이 일어난 후, 이전에 하지 않던 음주를 하고 집에 오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돈을] 나누어 준다”(LS 108). 이는 낙태를 한 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의 표시”(LS 108)이다. 미스 코넬티는 어머니의 죽음 이후에도 가톨릭 신앙심이 그리 대단하지 않다. 어머니가 남긴 보석과 같은 장신구는 그녀의 것이 되는데, 그녀는 어머니가 남긴 “묵주는 다른 장신구에 비해 거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다(LS 8). 이것은 그녀의 가톨릭에 대한 냉소적인 태도를 보여준다. 그래도 그녀는 남동생인 조셉 폴에게 엘리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상의하거나, 엘리에게 직접 충고를 하면서 그녀를 보살피준다는 점에서 좋은 사람이다. 미스 코넬티와 달리 조셉 폴은 태어날 때부터 줄곧 어머니의 “귀염둥이”(LS 1)였고, 그의 이름이 두 명의 가톨릭 성자에게 따온 것이라는 점에서 어머니의 종교적 열망을 엿볼 수 있다. 그의 인생은 어머니의 가톨릭 신앙관에 따른 판단에 좌우된다. 그는 어머니의 뜻에 따라 성직자가 되고자 했으나 “그가 종교적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LS 10)라고 어머니가 회의를 품게 되자 이를 받아들여 성직자의 길을 포기한다. 어머니는 그가 꿈을 포기하는 데 큰 역할을 한 셈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성직자가 되지 못하지만, 성직자처럼 독신자로 산다. 현재 비서인 버나뎃 오키프(Bernadette O’Keeffe)에게서 사랑을 받고 있으나, 그녀와 가정을 이룰 생각은 없고 독신자로서의 삶에 만족한다. 그의 생활이 비록 가톨릭교회가 요구하는 삶과 멀지만 그래도 그는 좋은 사람으로 “자제력

을 중시하고, 목소리를 높이거나 노여움을 보이지 않으며, 아무것도 읽지 않는 사람”(LS 69)이다. 코네티 부인의 두 자녀는 그녀가 원하는 가톨릭적 삶을 살지 못하지만, 그들은 선량한 사람으로 묘사된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작가는 종교적 신앙이 사람의 인간성을 평가하는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이것이 트레버가 종교적으로 분열된 아일랜드에 제시하는 평화의 메시지이다.

IV

트레버는 『사랑과 여름』에서 현재 아일랜드에서 일어나고 있는 개인의 사건을 과거의 사건과 연계시키면서 아일랜드가 직면하고 있는 역사적 갈등을 진단하고자 하였다. 엘리와 플로리안의 관계는 과거의 다른 두 개의 사건과 연계되면서 과거의 지배/피지배 관계를 되돌아보게 한다. 이러한 기법을 통해 개인적/윤리적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는 이야기가 정치적/이데올로기적 관점으로 읽을 수 있는 이야기가 된다. 트레버의 역사문제 집착은 독립 후 소수 집단이 된 아일랜드 신교도 작가의 딜레마를 보여준다. 과거 영국의 식민정책으로 시작된 지배/피지배 관계는 독립 후에도 아일랜드 사람에게 그대로 기억되어 신교도와 가톨릭이 함께 사는 세상을 건설하는데 장애물이 된다. 트레버는 개인의 이야기를 과거의 사건과 연계시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자 했다. 에밀리 파인(Emilie Pine)이 주장 하듯이, 역사에 대한 “기억은 희생자에게 정의를 실현해 주려 하고, 희생자가 다시 나오지 않게 규제하기에 미래지향적이다”(14). 트레버의 이야기는 아일랜드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여 과거와 같은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게 하기에 미래지향적이다.

트레버는 역사를 기억함과 더불어 가톨릭/신교의 이분법을 극복하기 위해 두 개의 정체성을 희석시켜 붕괴시키는 전략을 취한다. 영국은 두 개의 집단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아일랜드를 효율적으로 지배하려 했다. 트

레버는 종교적 신앙이 사람의 인간성을 평가하는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사랑과 여름』에 등장하는 인물은 종교와 상관없이 인간적 고뇌와 근심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선량한 인물이다. 사회에서 소수 집단에 속하는 신교도가 공동체의 평화에 이바지하고, 가톨릭 교리에 따라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사람도 사회를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한다. 궁극적으로 트레버는 좋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세상에서 분열과 분쟁의 역사는 잊힐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고려대)

인용문헌

- Delaney, Paul, and Michael Parker. Introduction. *William Trevor: Revaluations*, by Paul Delaney and Michael Parker, Manchester UP, 2013, pp. 1-12.
- Donnelly, Jr., James S. "Big House Burnings in County Cork during the Irish Revolution, 1920-21." *Éire-Ireland*, vol. 47, no. 3 & 4, 2012, pp. 141-97.
- Fitzgerald-Hoyt, Mary. "William Trevor's Protestant Parables." *Colby Quarterly*, vol. 31, no. 1, 1995, pp. 40-45.
- Hansson, Heidi. "Character, Community and Critical Nostalgia: *Love and Summer*." *William Trevor: Revaluations*, edited by Paul Delaney and Michael Parker. Manchester UP, 2013, pp. 198-212.
- Ingman, Heather. *Twentieth-century Fiction by Irish Women: Nation and Gender*. Ashgate, 2007.
- Jameson, Fredric. "Third-World Literature in an Era of Multinational Capitalism." *Social Text*, vol. 15, 1986, pp. 65-88.
- Joyce, James. *Ulysses*, edited by Hans Walter Gabler with Wolfhard Steppe and Claus Melchior, Penguin Books, 1986.
- Kennedy-Andrews, Elmer. "The Battlefield has never Quietened': Political Violence in the Fiction of William Trevor." *William Trevor: Revaluations*, edited by Paul Delaney and Michael Parker, Manchester UP, 2013, pp. 55-75.
- Kiberd, Declan. *Inventing Ireland*. Jonathan Cape, 1995.
- Lodge, David. "The Subtle Touch." *The New York Review of Books*, 19 Nov. 2009, pp. 54-55.
- MacKenna, Dolores. *William Trevor: The Writer and his Work*. New Island, 1999.

- Maher, Eamon. "Religious Sensibility of William Trevor." *Spirituality*, vol. 24, no. 138, May/June 2018, pp. 174-80.
- Manganiello, Dominic. *Joyce's Politics*. 1980. Routledge, 2016.
- Monaco, Angelo. "Between Hagiography and Insanity: Refracting Political Violence in William Trevor's Elegiac Fiction." *Estudios Irlandeses*, vol. 14, March 2019, pp. 109-20.
- Paulson, Suzanne Morrow. *William Trevor: A Study of the Short Fiction*. Maxwell Macmillan International, 1993.
- Pine, Emilie. *The Politics of Irish Memory: Performing Remembrance in Contemporary Irish Culture*. St. Martin's Press, 2011.
- Stout, Mira. "William Trevor, The Art of Fiction No. 108." *The Paris Review*, Issue 110. Spring 1989, www.theparisreview.org/interviews/2442/the-art-of-fiction-no-108-william-trevor. Accessed 1 Apr. 2020.
- Tevor, William. *Love and Summer*. Viking, 2009.
- Whiteley, Patrick J. "Remembering and Forgetting: William Trevor's Ethics of Memory." *New Hibernia Review*, vol. 21, no. 2, Summer 2017, pp. 77-92.
- Yeats, W. B. "Cathleen Ni Houlihan." *Modern Irish Drama*, edited by John P. Harrington, W. W. Norton & Company, 1991, pp. 3-11.

Abstract

William Trevor's Reconciliation with Irish History: *Love and Summer*

Seokmoo Choi

In *Love and Summer*, William Trevor, an Irish Protestant by birth and upbringing, endeavors to unravel the complicated problem of Ireland's historic conflicts tormenting and dividing Irish people. The current event is linked to the past ones: Ellie's affair with Florian is compared and interconnected with Miss Conulty's affair with an Englishman and the sexual misconduct of the St. Johns, an Anglo-Irish Protestant Ascendancy family. Ellie's relationship with Florian can be seen as an example of how Catholic women have been historically ill-used by Protestant men. Like James Joyce, for Trevor "the brutalism of love and politics were interconnected." The story of sexual conquest reminds us of British's of Ireland. By scrutini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wo communities, Catholic and Protestant, Trevor has a chance to reflect on the cruel history of colonization and to offer a literary ground for reconciliation. Interestingly the catastrophe which might be caused by Ellie's affair could be avoided by the help of Orpen Wren, an aged Protestant. Irrespective of the religious differences, people are depicted as good and kind. Ultimately Trevor suggests that, with such people, history of division and conflicts will not be repeated in Ireland.

■ **Key words** : William Trevor, *Love and Summer*, history, Ireland, reconciliation

(윌리엄 트레버, 『사랑과 여름』, 역사, 아일랜드, 화해)

논문접수: 2020년 5월 24일

논문심사: 2020년 6월 12일

게재확정: 2020년 6월 18일